

출산 증속에서 모-조모의 세대간 차이 연구

Generational Differences in Korean Baby-Delivery Culture between Young Mother and Grandmother Generation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유안진
시간강사 민하영

Dept. of Child & Family,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An-Jin, Yoo

Lecturer(Ph. D) : Ha Young, Min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문헌고찰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traditional baby-delivery practices between young mother and grandmother generations.

The subjects were 118 young mothers and 118 their own mothers or mothers-in-law in Tae Gu district. Young mothers had the first baby aged from 2- to 2.5- year-old. The subjects answered the questionnaires on Korean traditional baby-delivery practices developed by the researcher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Crosstabs,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More grandmothers believed in supernatural being who influenced pregnancy and used to be called as 'grandma Sam Shin', expected to have son, and had charms than young mothers.

But less grandmothers had sexual intercourse at the time of ovulation, took physical care, and practiced fetal education than young mothers.

2. On the other hand, no generation differences were found in dreaming of foretelling conception(Te Mong), eating a restorative and food to get pregnancy, and washing own's hair or body and avoiding attending a funeral near the time of baby-delivery.

3. Most of young mothers gave birth in hospital with the doctor's help, whereas most of grandmothers did at their home with the help of the experienced old women.

Most of young mothers' husbands were at the waiting room in the hospital, but about half of grandmothers' husbands were at work when their wives gave birth.

I. 서론

‘사람사는 일은 자식을 낳는 일에서 비롯된다.’ (東醫寶鑑 下卷 雜病卷 10求嗣, 유안진, 1994 재인용)라는 말은 혈연 강조의 유교문화가 지배했던 한국 전통사회에서, 부모됨이 가계계승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아동양육으로 이어지는 부모됨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지만, 세대로 전승되어서 개인에게 내면화된, 양육 관련 풍속, 제도, 신념, 관습, 행위, 사고, 그리고 정서 등과 같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문화적이고 제도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출산 전후에 이루어지는 아동양육은, 누대에 걸쳐 축적되어 온 사회적 또는 문화적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거나 실행하는, 문화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양육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제도적 또는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의도나 동기와는 상관없이 사회 문화적인 관습, 관념 또는 행동 규범에 의해 영향받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동양육에 관한 방법이나 가치관 등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이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이완정·현은강, 1999; Bengston & Robertson, 1985; Jarema, 1994; Myers & Williams-Petersen, 1991)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양육의 세대간 전이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또는 새로운 양육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해 젊은 부모세대는 그들의 부모세대와 다른 아동양육을 실천(Myers & Williams-Petersen, 1991; Nugent, 1991)함으로써 양육행동의 세대간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아동양육에 관한 풍속이나 가치관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됨으로써 연속성을 유지하기도 하고, 변화되어 새로운 풍속이나 가치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간의 전이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육 풍속이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얼마만큼 단절되고 얼마나 전이되었는지를 밝혀낸 연구는 드물었다. 다만 이완정과 현은강(1999)이 우리나라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아동 양

육 실재를 비교 분석한 영아 걸음마기 자녀양육 신념의 세대간 비교연구가 있을 뿐 아동양육의 세대간 전이(轉移)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아동양육의 세대간 연속성이나 비연속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모 세대와 그들의 부모 세대인 조모 세대를 대상으로 두 세대간 아동양육 풍속을 비교함으로써, 모-조모 세대간의 양육풍속의 전이(轉移)와 변화(變化)를 규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양육 풍속은 출산을 통해 비로소 나타나지만, 임신 중 태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나 행동이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인다는 선행 연구결과(Enkson, 1963; Coll, 1991)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아동양육 풍속은 임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임신과 관련된 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 준비과정에서부터 아동양육 풍속은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아동양육 풍속 중 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인 준비과정이 시작되는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 출산 전과 출산 시에 나타나는 모 세대와 조모 세대의 출산 풍속을 한정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세대간 전이(轉移) 및 차이 그리고 변화(變化)를 조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풍속이란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공유되면서 전수된 관습과 습관(국어대사전, 1994)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어 온 전통성을 함의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임신과 출산기의 아동양육 풍속을 전통적인 출산 관련 풍속과 연결시켜, 출산 풍속의 모-조모 세대간 전승(傳承) 또는 전이(轉移)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로 구체화 된다.

- 연구문제 1) 출산 전 풍속은 모-조모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출산 시 풍속은 모-조모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 해결은 한국의 신세대라 할 수 있는 모(母)세대와 해방 전후세대라 할 수 있는 조모(祖母) 세대의, 출산 관련 아동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전통적인 출산 풍속의 실천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된다. 이와 함께 출산과 관련한 아동양육 풍속의 모-조모 세대간의 구체적인 유사점과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확보된다.

II. 문헌고찰

유안진은 1975년부터 1988년까지 당시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차 한국의 전통적인 아동양육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바 있다. 70세 이상의 남녀 노인으로부터 보고된 한국의 전통적인 아동양육은 그들이 첫 부모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아동에게 실천했던 경험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아동은 현재의 조모 세대를 구성하는 바, 한국의 아동양육에 관한 조모 세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조모 세대의 부모 세대를 조사 대상으로 연구한, 유안진의 1차 연구 자료가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유안진(1994)의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김용숙(1993)의 한국 여속사, 이능화(1975, 김상익 역)의 조선여속고 등을 참고하여, 아동양육 풍속 중 출산 풍속에 관한 내용을 출산 전과 출산 시 풍속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1. 출산 전 풍속

출산 전 풍속에는 기자속(祈子俗), 태몽(胎夢), 및 태교(胎敎)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1) 기자속(祈子俗: 초자연적 힘에 대한 믿음)

한국의 전통 사회는 혈연 연속성을 강조한 유교 문화의 사회체제였기 때문에, 가부장제 계승자인 남아 출산은 혼인의 목적이자 결혼한 여성의 절대적 명제 과제였다. 따라서 가계 계승자인 남아 출산을 위해, 한국 전통사회적 발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 모든 사고체계가 다 동원되었다. 그 대표적 예로 기자속(祈子俗) 발달을 지적할 수 있다.

기자속(祈子俗)이란 인간보다 힘이 있다고 생각

되는 초자연적 존재에게 남아 출산을 기원하는 풍속을 말한다(유안진, 1994). 한국의 전통적인 기자속(祈子俗)에는 남아 출산을 위해 영험한 힘이 있다고 전해지는 산, 샘물, 또는 바위를 대상으로 혹은 옥황상제, 조상신, 또는 삼신 할머니¹⁾ 등을 대상으로 남아 임신을 치성(致誠)하거나, 돌부처, 망부석 또는 돌미륵 등의 코를 갈아 마심(김용숙, 1993; 유안진, 1994)으로써 남아 출산을 기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섭취를 금하거나 황소의 성기, 밤 또는 대추 등과 같이, 남성을 상징하는 특정한 음식을 가려먹거나 한약재를 복용함으로써, 또는 부적이나 아기 물건²⁾과 같은 특정한 상징물을 몸에 지님으로써 남아 임신을 염원하는 속신(俗信)도 포함되었다(유안진, 1994).

이와 같은 기자속(祈子俗)이 전통사회에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신이 남녀의 교합에 의해 생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기 보다,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존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다상징문화(多象徵文化)가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2) 태몽

전통적으로 임신부와 그 가족들은 아기의 임신을 예시해주는 꿈인 태몽(胎夢)이, 태어날 아기의 성별과 운명까지 예언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태몽은 양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태몽은 임부 자신이 꾸거나 남편, 시댁과 친정 가족, 친지, 또는 이웃 등이 꾸어 주기도 했는데, 태몽의 내용에 따라 남태몽과 여태몽으로 구분하였다. 해나 달을 삼키거나, 안는 꿈, 학, 용, 호랑이, 큰 물고기 등의 꿈은 남태몽(男胎夢)으로, 그리고 꽃, 뱀, 금반지 등의 꿈은 여태몽(女胎夢)으로 해석되었다.

1) 삼신할미: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에서 아기의 많고 적음과 있고 없음 그리고 해산을 주관하는 신. 삼신 할머니 또는 產神이라고 부르기도 한다(한국민속대사전, 1998)

2) 아기 물건: 도끼, 호랑이 발톱, 작은 고두쇠 등 남아 출산의 주력이 있다고 여겨진 특정의 사물이나 상징물을 의미함(유안진, 1994).

태몽은 임부와 그 가족에게 태아에 대해 기대감과 출산에 대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준비의식을 갖게하기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유안진, 1994).

3) 태교

태교(胎敎)란 태중의 태아가 전인적인 교육을 받아서, 신체적, 정서적, 지적,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인격자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경희·이경희, 1994)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임신을 한 부모는 언어나 행동을 통제, 관리하거나, 정서를 조절하거나, 음식물 섭취에 유의하거나, 좋은 기품을 지닌 물건을 가까이 두고 감상하도록 교육 및 배려를 받았는데, 이는 태교수준의 실천여하에 따라 출산되는 아동의 건강, 인품, 기질, 용모, 재주, 및 성품 등이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태교는 고려조 정몽주의 모친 이씨의 태중훈문(胎中訓文)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조 허준의 동의보감, 사주당(師朱堂) 이씨의 태교신기(胎敎新記) 등과 같은 의학서 및 여성 교육서 등에 기록되어 권장되어 왔을 뿐 아니라, 구전을 통해 민간에 널리 알려져 왔다.

최근 태교의 효용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박문일, 1999; Kolata, 1984)되면서 태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태교학회의 결성, 태교 음악 제작, 그리고 태교 관련 잡지(월간 태교) 출간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2. 출산 시 풍속

출산 시 풍속으로 출산에 즈음한 가족의 출산 준비와 해산속(解産俗)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의 출산 준비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산모 및 아기의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출산 직전 및 직후에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출산준비로서 임부는 머리

를 감거나 목욕을 하였다. 이는 머리감기가 초상(初喪)을 상징한다고 하여 해산(解産) 당월에는 금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남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에서 근신하였으며, 불길한 상징으로 인식되는 상가출입이나 살생(殺生)을 하지 않았다. 이는 유약해진 임부나 면역체가 부족한 신생아에게 상가출입이나 살생과정에서 옮아 올 수 있는 병마나 전염병균이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살생을 죄악시 하여 선한 신(善神)의 도움을 기대했던 심리적 준비로 해석된다(유안진, 1994).

2) 해산속(解産俗)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임부의 집안내 여성 친척이나 출산 조력의 경험이 많은 이웃 여성 또는 산파(조산원) 등의 도움으로 해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부의 해산달이 되면 임부의 남편은 외출을 삼가고 집을 지키고 있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해산에 대비하였으며, 출산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시에 책임 있는 결정자로 역할함으로써, 임부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었다. 한편 남편은 산실에서 산고를 나누는 각종 상징적 행동(상투잡기, 용마루 잡고 힘쓰기, 기침소리 내기 등)을 함으로써 임부의 출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외에 임부의 순산을 위해 닭이 달걀을 낳듯 쉽게 아기를 낳으라고 산고 트는 산모에게 날계란을 먹인다든가, 매끄러운 메밀 수제비처럼 순산하라고 메밀수제비를 먹인다든가, 굴뚝의 연기 나오듯이 빨리 아기를 낳으라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부채질하는 등의 해산속(解産俗)도 행해졌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대구시 및 인접 지역은 전통과 현대 문화가 고루 섞여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모 세대 뿐 아니라 조모 세대에서도 행해졌던 일반적인 아동

양육 풍속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대구시 및 인접지역을 조사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이 지역 안팎에 거주하는 생후 2세에서 2세 반된 첫 아이를 둔 어머니를 모 세대의 연구대상자로, 그리고 그의 어머니 또는 시어머니를 조모 세대의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모 세대 연구대상자를 생후 2세에서 2세 반된 첫 아이를 둔 어머니로 한정하는 것은 시간 흐름에 따른 망각효과 및 회고적 자료에 의한 자료 누락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연구대상 표집은 제보자 모집 표집(snowball sampling) 또는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등 비확률 표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여건의 어려움으로 모와 조모 세대 각각 118명만을 표집할 수 있었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모 세대 연령은 20대가 19.5%(23), 30대가 80.5%(95) 이었다. 조모 세대 연령은 50대가 49.2%(58), 60대가 41.5%(49), 및 70대 이상이 9.3%(11)였다. 모 세대는 평균 1966년에서 1967년 사이에 출생하여 평균 1992년에 결혼하였으며, 평균 1993년에서 1994년 사이에 첫 아이를 낳았다. 조모 세대는 평균 1938년에서 1939년 사이에 출생하여 평균 1960년에 결혼하였으며, 평균 1961년에서 1962년 사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였다.

모 세대는 고졸 이하 38.1%(45), 전문대졸 16.9%(20), 대학졸 28.0%(33), 그리고 대학원 이상 16.9%(20)의 학력자였다. 조모는 무학 21.2%(25), 초등학교졸 30.5%(36), 중학교졸 21.2%(25), 고졸 18.6%(22), 및 전문대졸 이상 8.4%(10)의 학력자였다.

3. 측정도구

전통 아동양육 풍속에 관한 측정도구는 임신 및 출산시 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및 정신적 준비단계와 관련된 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우선 임신 및 출산 관련 아동양육 풍속을 출산 전과 출산 시로 조작 구분한 후, 이와 관련된 고전문헌 및 고문헌에 대한

해석자료 그리고 선행연구(김용숙, 1993; 유안진, 1983, 1994)를 기초로 측정 문항을 구성하였다.

출산 전 풍속 문항은 '일반적 사항', '임신하기 위한 노력', '임신 중 섭생', 그리고 '전통적 태교 실천' 영역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일반적 사항' 영역에는 ① 임신을 관장하는 초인적 존재에 대한 믿음, ② 태몽, 그리고 ③ 첫 아이 성별에 대한 기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임신하기 위한 노력' 영역에는 ① 임신을 위해 보약 복용, ② 임신에 도움되는 음식 가려 먹기, ③ 배란일에 부부관계, 및 ④ 부적이나 아기 물건 등의 소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사항'과 '임신하기 위한 노력' 영역의 각 문항은 예/아니오 응답의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 사항' 영역 중 태몽 관련 문항은 '아기 임신과 관련하여 태몽을 꾸었나?'로 기술함으로써 예/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편 '임신 중 섭생'과 '전통적 태교 실천' 영역은 '거의 지키지 않았다(1점)', '어느 정도 지켰다(2점)', '많이 지켰다(3점)'의 3점 Likert형 6문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점수범위는 각각 6점에서 18점이며, '임신 중 섭생' 영역과 관련한 모 세대와 조모 세대 척도에 관한 내적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 = .63, .69$ 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 태교 실천' 영역과 관련한 모 세대와 조모 세대 척도에 관한 내적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 = .75, .73$ 로 나타났다.

출산 시 풍속 문항은 '가족의 출산 준비'와 '출산 당일'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가족의 출산 준비' 영역은 ① 임부의 머리 감기와 목욕, 그리고 ② 가족의 상가 방문이나 살생 금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출산 당일' 영역은 ① 출산장소, ② 출산을 도운 사람, 그리고 ③ 남편의 위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질문은 예/아니오 응답의 폐쇄형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출산 전 풍속과 관련된 '임신 중 섭생'과 '전통적 태교 실천'은 각각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거의 지키지 않았다(1점)', '어느 정도 지켰다(2점)', '많이 지켰다(3점)'의 3점

Likert로 구성하였다. 점수범위는 각각 6점에서 18점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섭생'과 관련한 모 세대와 조모 세대 척도에 관한 내적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63, .69$ 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 태교 실천'과 관련한 모 세대와 조모 세대 척도에 관한 내적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alpha=.75, .73$ 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훈련된 아동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자료 조사원이, 첫 자녀의 연령이 2세부터 2세 반까지인 대구시내 및 인접지역 거주 모 세대를 잠정 표집하였다. 그리고 그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설문조사의 가능여부를 사전 전화 연락으로 알아본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자료수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조사원은 모 세대 조사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된 설문지는 우송용 봉투에 넣어 우송해 주도록 요청했다. 조모 세대용 질문지는 자료 조사원이 모 세대의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일일이 읽어준 후, 표기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Window형 SPSS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등의 단순통계로 분석했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산정은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에 의거했고, 연구문제 분석은 Crosstabs와 t검증을 이용했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출산 전 풍속에 관한 두 세대간 차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 사항 영역 중

임신과 출산이 삼신할미나 옥황상제 또는 조상신 등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에 의해 관장된다는 믿음은, 두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4.51, p<.05$). 모 세대와 조모 세대 모두 초인적인 존재의 힘을 믿는 경우가 믿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조모 세대가 모 세대보다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을 믿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사항 중 태몽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모 세대와 조모 세대 모두 세대간 차이없이 태몽을 꾸지 않는 경우보다 꾸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몽의 종류³⁾만을 살펴보면, 모 세대와 조모 세대 모두 뱀을 태몽으로 가장 많이 꾸었으며, 돼지, 사자·호랑이, 물고기 순(기타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순서임)으로 태몽을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사항 중 첫 아이 성별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면, 모 세대와 조모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 세대와 조모 세대 모두 딸보다 아들을 바랐으나, 조모 세대(50.0%)는 모 세대(25.4%)보다 아들을 절대적으로 바란 것으로 나타났다. 모 세대에서 아들 선호가 감소하는 것은 25세에서 49세의 기혼 부인을 대상으로, 아들 선호를 연구한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들이 꼭 필요하지 여부에 대한 질문

3) 태몽의 종류

구 분	사자 호랑이	돼지	용	뱀	잉어	미꾸라지
모 세대 (N=91)	7 (7.7%)	10 (11.0)	2 (2.2)	17 (18.7)	4 (4.4)	2 (2.2)
조모 세대 (N=73)	3 (4.1%)	5 (6.8)	2 (2.7)	8 (11.0)	1 (1.4)	0 (.0)
구 분	물고기	개	복숭아	감	밤	기타채소
모 세대 (N=91)	6 (6.6%)	0 (.0)	3 (3.3)	3 (3.3)	4 (4.4)	3 (3.3)
조모 세대 (N=73)	3 (4.1%)	2 (.9)	2 (2.7)	2 (2.2)	7 (9.6)	3 (4.2)
구 분	기타과일	야기	달/해	꽃	조상	기타
모 세대 (N=91)	9 (9.9%)	3 (3.3)	1 (1.1)	5 (5.5)	2 (2.2)	10 (11.0)
조모 세대 (N=73)	6 (8.2%)	1 (1.4)	4 (5.5)	6 (8.2)	3 (2.2)	15 (20.5)

〈표 1〉 출산 전 풍속에 관한 두 세대간 차이

영역	내용	구분	모 세대	조모 세대	Pearson χ^2
일반적 사항	임신을 관장하는 신적인 존재 믿음	예	62(53.9)	79(67.5)	4.51*
		아니오	53(46.1)	38(32.5)	
	태몽	예	93(78.8)	78(67.2)	3.98
		아니오	25(21.2)	38(32.8)	
임신 하기 위한 노력	첫 아이 성별에 대한 기대	아들 많이 바람	30(25.4)	58(50.0)	17.43**
		아들 약간 바람	34(28.8)	23(19.8)	
		아들, 딸 상관없음	45(38.1)	33(28.4)	
		딸 약간 바람	6(5.1)	1(.9)	
임신 하기 위한 노력	보약 먹음	예	26(22.0)	19(16.1)	1.25
		아니오	92(78.0)	99(83.9)	
	임신에 도움되는 음식가려 먹음	예	28(23.7)	29(24.6)	0.02
		아니오	90(76.3)	89(75.4)	
배란일에 부부관계	예	36(30.5)	7(5.9)	23.92***	
	아니오	82(69.5)	111(94.1)		
부적이나 아기 물건 등 지님	예	2(1.7)	11(9.3)	6.59*	
	아니오	116(98.3)	107(90.7)		

* p<.05 ** p<.01 *** p<.001

에 대해 1991년 조사에서는 40.5%가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1997년 조사에서는 24.8%만이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보다 높은 39.4%가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세에서 24세 연령층의 부인보다 높게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소, 1997). 이는 아들의 필요성에 대한 모 세대의 태도가 조모 세대에 비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남아 선호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임신하기 위한 노력에서, 모 세대와 조모 세대 모두 한약재용 보약을 섭취하는 경우와 임신에 도움되는 음식을 가려 먹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두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임신하기 위해 배란일에 맞춰 부부관계를 한 경우, 모 세대는 '예' (30.5%)라고 대답한 경우보다 '아니오' (69.5%)라고 대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조모 세대는 6%만이 임신하기

위해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했을 뿐, 94%가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의 차이는 모 세대가 조모 세대보다 임신을 위해 과학적 방법에 더 적극적으로 의존했음을 의미한다.

임신하기 위해 부적이나 아기 물건을 몸에 지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모 세대와 조모 세대 모두 '예' 보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조모 세대는 모 세대에 비해 부적이나 아기 물건을 몸에 지닌 경우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chi^2=6.59$, $p<.05$). 이는 임신이 생리적 현상이기 보다 초자연적 존재의 힘에 의해 관장된다는 시각이, 모 세대보다 조모 세대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앞서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조모 세대가 첫 부모됨을 경험했던 1960년대의 경우 근대화가 전국적으로 도도되었음에도 전근대적 생활양식이 여전히 존재했다는 연구결과(농촌사회 연구소, 1965; 임희섭, 1980; 이동원, 1979)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의 임신 중 섭생과 관련하여 임신하고 있는 동안 술, 담배 등의 금기나, 순산(順産)을 위하여

〈표 2〉 임신 중 섭생

구분	임신 중 섭생 평균(표준편차)	t값
모 세대(109)	14.0(2.2)	12.7***
조모 세대(113)	10.1(2.4)	

*** p<.001

〈표 3〉 전통적 태교 실천

구분	임신 중 섭생 평균(표준편차)	t값
모 세대(115)	12.2(2.4)	2.3*
조모 세대(115)	11.3(2.5)	

* p<.05

규칙적인 운동하기, 또는 평소 먹던 것보다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기 등의, 임신 중 섭생노력이 모 세대와 조모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모 세대는 과학적 측면에서 조모 세대에 비해 임신 중 섭생에 더 관심을 쏟았던 것($t=12.7, p<.001$)으로 나타났다. 최근 태아학의 발달로 모체의 건강과 태아 건강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박문일, 1999)되고 있고, 어머니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과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노영주, 1998) 있기 때문에, 모 세대가 조모 세대보다 임신 중 섭생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의 전통적 태교 실천에서, 임신하는 동안 남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등의 부정한 마음을 먹지 않으려 한다든지, 아름다운 말만 듣고 좋은 음악만 들으며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한다든지, 위인의 사전을 주변에 걸어 놓고 태어날 아기가 위인과 같은 인격, 기질, 품성은 물론 장래 운세 등을 지닐 것을 바라는 등등의 전통 태교의 실천이, 조모 세대보다 모 세대에서 유의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t=2.3, p<.05$)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의미의 태교 실천이 조모 세대보다 모 세대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 태아학(embriology)을 통해 태교의 효과가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검증(박문일, 1999; Kolata, 1984)되면서, 그 중요성이 대중매체를 통해 보급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고학력의 모 세대는 저

학력의 공평했던 조모 세대보다 과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태교를 더 유념하여 실천했다고 해석된다.

2. 출산 시 풍속에 관한 두 세대간 차이

〈표 4〉에서, 모 세대와 조모 세대에 나타나는 가족의 출산 준비와 출산 당일의 출산 시 풍속을 알 수 있다. 출산이 가까워질 때 임부가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많이 나타났으며, 그러한 양상은 모 세대와 조모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모 세대와 조모 세대 모두, 오랜 동안의 산후조리로 인해 청결을 유지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머리를 감아 두거나 목욕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임부의 남편이나 가족이 상가(喪家)에 참석하지 않거나, 살생 행동 및 살생 장면을 보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 세대와 조모 세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출산 당일의 영역을 출산장소, 출산을 도운 사람, 그리고 남편이 있었던 장소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 세대와 조모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출산장소와 관련하여 모 세대는 99.2%가 병원에서 출산했으나 조모 세대는 단지 26.3%만이 병원에서 출산하였을 뿐, 73.7%가 집에서 출산하였다. 조모 세대와 달리 모 세대는 대부분 병원에서 분만하였는데, 이는 1977년 도입된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인구 확대에 따라 1989년 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 서비스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증가로 인해 임부와 그 가족들이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 가능성에 대해 더 민감해짐으로써(노영주, 1998), 병원 중심의 출산 문화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출산을 도운 사람의 경우 모 세대는 대부분 병원 의사(95.8%)라고 응답한 반면, 조모 세대는 산파(32.5%), 의사(27.4%), 친척이나 친구(23.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모 세대는 자가 분만을 했기 때문에, 분만시 의사의 도움보다 산파나 친척의

〈표 4〉 출산 시 풍속에 관한 두 세대간 차이

	내 용	구 분	모 세대	조모 세대	Pearson χ^2
가족의 출산준비	머리 감거나 목욕함	예 아니오	87(73.7) 31(26.3)	74(62.7) 44(37.3)	3.03
	상가방문이나 살생금지	예 아니오	83(70.3) 35(29.7)	87(73.7) 31(26.3)	0.34
출산 당일	출산장소	병원 집 기타	117(99.2) 0(.0) 1(.5)	31(26.3) 87(73.7) 0(.0)	137.9***
	출산을 도운 사람	의사 산파 친척이나 친구 기타	113(95.8) 1(.8) 1(.8) 3(2.5)	31(27.4) 39(32.5) 27(23.1) 20(17.1)	117.06***
	출산시 남편 위치	직장이나 일터 병원 대기실 산모와 함께 (분만실이나 산실) 기타	23(19.5) 82(69.5) 7(5.9) 6(5.1)	60(51.3) 18(15.4) 4(3.4) 35(29.9)	78.78***

*** p<.001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하는 동안 남편이 있었던 장소를 살펴보면, 모 세대의 남편은 과반수 이상(69.5%)이 병원 대기실에 있었고, 19.5%만이 직장에 있었다. 그러나 조모 세대의 경우 과반수 이상(51.3%)이 직장이나 일터에 있었다. 전통적으로 아내의 산월(産月)에 남편이 집을 지키고 있었던 전통적 풍속을 고려해 보면, 조모 세대가 첫 아이를 출산했던 평균 1963년대만 해도, 한국은 근대화과 경제 성장이 국가의 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남성 가장은 아내의 출산보다 직장 근무가 우선되었던 것 같다. 한편 조모 세대는 모 세대와 달리, 출산이 전적으로 여성 가족원의 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 조모 세대와 달리, 모 세대 남편의 과반수 이상이 아내가 출산하는 동안 병원 대기실이나 분만실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동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 및 참여의 증가(송지은,한경혜, 1994; Cooney, Pedersom, Indelicato, & Palkovitz, 1993) 외에도 소수자녀 양육하기와 노동법상 아내의 출산일을 합법적 휴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상 변화에 기인한 결과라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아동양육은 한 사회의 문화 및 풍속이라 할 만큼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공유되어 온 관습에 의해 영향받거나 지배된다. 그럼에도 아동양육 풍속이 세대에서 세대로 어느 정도 전이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구시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2세에서 2세 반 사이의 첫 아이를 둔 어머니와 그의 친정 또는 시어머니를 각각 118명씩 선정, 이들의 아동양육 풍속을 비교함으로써, 모 세대와 조모 세대간에 나타나는 아동양육 풍속의 전이(轉移)와 변화(變化)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아동양육 풍속 중 부모기로의 전환 시점인 임신 및 출산을 중심으로, 출산 전과 출산 시 풍속에 관한 모 세대와 조모 세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조모 세대는 모 세대에 비해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힘에 대한 믿음, 남아 출산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임신을 위한 부적 또는 아기 물건 소지의 기자속신(祈子俗信) 등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빈도에 차이가 있을 뿐, 두 세대 모두 임신과 출산을 관장하는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믿는 경우가 믿지 않은 경우보다, 남아 기대가 여아 기대보다, 부적을 지니지 않는 경우가 지니는 경우보다 많았다. 이는 모 세대와 조모 세대간에 출산 전 풍속이 빈도나 정도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뿐, 양상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임신하기 위해 배란일에 부부관계를 맺거나, 전통적 태교 실천 및 임신 중 섭생 등의 풍속에 있어서는, 모 세대가 조모 세대 빈도나 정도면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1960년대 부모됨을 경험한 조모 세대의 경우, 1960년대 근대화와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교육이 부족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배란일의 부부관계라든가, 임신 중 섭생, 그리고 전통적 태교의 실천은 조모 세대보다 고학력의 모 세대에서 새롭게 나타난 아동양육 풍속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모 세대와 조모 세대 모두 태몽을 꾸는 경우가 꾸지 않은 경우보다, 임신하기 위해 보약을 먹거나 음식을 가려 먹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임부가 머리를 감거나 목욕을 하는 경우가, 또는 남편이나 친지가 상가나 살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으나, 두 세대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모 세대와 조모 세대의 부모됨 경험의 30년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들 풍속이 두 세대간 걸쳐 유사한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출산 시 풍속 가운데 출산장소, 출산을 도운 사람, 출산 시 남편이 있었던 장소는 모 세대와 조모 세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 세대는 대부분 병원 분만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지만 조모 세대는 대부분 가정 분만으로, 산파나 여성 친척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였다. 한편 모 세대의 남편은 대부분 출산장소인 병원에서 대기했지만, 조모 세대의 남편은 대부분 직장이나 기타 장소 등 출산장소 외에 있었다. 이는 출산 시 풍속 가운데 출산 당일 풍속이 조모 세

대에서 모 세대로 전이(轉移)되는 동안 상당히 변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른 전국민의 의료 서비스 혜택, 소수의 자녀 양육 및 아버지 역할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사회구조 및 가치관 변화에 의해 조모 세대의 출산 풍속이 모 세대로 전이되지 못하고, 모 세대에서 새로운 출산 풍속을 발생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임신을 위한 보약 복용 및 음식 가려 먹기는 조모 세대와 모 세대간에 큰 차이없이 나타나고 있지만 두 세대 모두 지배적인 양상은 아니다. 그러나 태몽꾸기, 산일(産日)이 가까워질 때 임부의 머리 감기나 목욕하기, 또는 가족들이 상가 출입이나 살생(殺生) 금지는 조모 세대 뿐 아니라 모 세대 안에서도 여전히 지배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임신과 출산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관장된다고 믿거나, 남아 출산을 선호하는 것은 조모 세대에서도 모 세대로 이어져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만 모 세대에서는 조모 세대만큼 지배적이거나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임신 중 섭생이나 태교는 조모 세대보다 모 세대에 이르러 더욱 적극적으로 발달한 풍속이라 할 수 있으며, 배란일의 부부관계는 조모 세대에 거의 없었던, 모 세대의 새로운 임신 풍속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부적이거나 아기 물건 지니기는 조모 세대에 미약하게 나타났지만 모 세대에선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써 모 세대로 전승되지 못한 출산 풍속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출산 당일의 출산장소, 출산을 도운 사람, 그리고 남편이 있었던 장소와 관련된 풍속은, 모 세대와 조모 세대의 부모됨의 30년 격차 동안 상당히 변모된 모습으로 새롭게 발달한 풍속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모 세대에서 관찰되는 출산 풍속 중 몇몇 부분은 조모 세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농경 유교 문화에서 발전한 전통적인 출산 풍속 중 상당 부분이 정보 산업 사회의 민주적 가치와 과학적 아동양육을 강조하는 신세대 모에 의해 다소 변모는 되었지만 여전히 전이되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출산 풍속을 토대로 모 세대와 조모 세대의 출산 전과 출산 시 풍속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아동양육 풍속의 세대간 전이(轉移)와 변화(變化)를 부분적이거나 규명한 이 연구는, 대구시 및 그 인접지역에 한정된 자료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자기 보고식 회고적 자료가 지니는 정확성의 한계점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광복 전후에 출생하여 1960년대 첫 부모됨을 경험했던 조모 세대와, 본격적인 근대화가 태동하기 시작한 1960년대에 출생하여 1990년대 첫 부모됨을 경험했던 신세대 모(조은정, 1994; 한국사회학회, 1990)간의 아동양육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30년간의 시간적 격차에도 지속되거나, 소멸된 또는 새롭게 생성된 아동양육 풍속을 경험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 참고문헌

- 1) 김용숙(1993). *한국어숙사*. 서울: 민음사.
- 2) 노영주(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 농촌사회연구회(1965). *농촌사회학*. 서울: 민조사
- 4) 박문일(1999). 태교는 과학이다.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5) 송지은·한경혜(1994).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보상-대가 지각의 유형. *대한가정학회지*, 32(4), 73-83.
- 6) 유안진(1983). 한국전통사회의 특성과 초기 사회화, 한국인의 초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9-116.
- 7) 유안진(1994). *한국의 전통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8) 이능화저, 김상익 역(1975). *조선어숙고*. 서울: 대양서적
- 9) 이경희·이경희(1997). *아동발달과 양육*. 서울: 형설 출판사.
- 10) 이동원(1979).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 한국여성연구소(편), *여성학*.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11) 이완정·현운강(1999). 영아 걸음마기 자녀양육 신념의 세대간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97-110.
- 12) 이희승 편(1994).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13) 임희섭(1980). *한국사회의 구조변화*, 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론*. 서울: 민음사.
- 14) 조은정(1994). 신세대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 선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서.
- 16) 한국사전연구소(1998). *한국민속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17)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도서출판 나남.
- 18) Bengston, V. L. & Robertson, J. F.(Eds.) (1985).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Inc.
- 19) Coll, G.(1991). Developmental outcomes of minority infants: A process oriented look at our beginnings. *Child Development*, 61, 271-289.
- 20) Cooney, T. M., Pederson, P. S., Indelicato, P.S., & Palkovitz, R.(1993). Timing of fatherhood: Is 'on-time' optimal?.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05-215.
- 21)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 22) Jarema, W. J.(1994). *Fathering the next generation*. NY: Crossroad.
- 23) Kolata, G.(1984). Studing learning in the womb (prenatal learning). *Science*, Vol. 225, July 20, 302.
- 24) Myers, B. J. & Willams-Petersen, M. G.(1991). Beliefs and memories about child-rearing across generations: mothers and grandmothers of one-year old infan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67, 111-128.
- 25) Nugent, J. K.(1991). Cultural and psychological influences on the father's role in infant development. *J. of Marriage and Family*, 53, 475-485.